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9(土)	20(日)
 맑음 10/26℃	 구름 조금 13/25℃

News

- AI 전남 19곳으로 늘어 ②
- 광주·전남 0교시 안기로 ③
- 박태환 400m 아시아 1番 ⑧

Books

- '파라오의 저주' ⑭

Entertainment



- 세상 떠난 유명인들 부활? ⑧
- 한국배우 미국행 활기 ⑨

Wellbeing

- 식품 탐구 - 썩 ⑬



우원직할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buniv.ac.kr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남과학대학
 www.jnsci.ac.kr



그림같은 화순 '세량제' 화순군 화순읍 세량리에 있는 작은 저수지 '세량제'가 전국에서 몰려든 수백명의 사진작가들로 붐비고 있다. '세량제'는 물안개와 수면에 반사되는 산벚꽃, 버드나무가 어우러져 봄 사진 촬영의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한전 先이전 後 민영화 해야”

민영화만 앞세우면 공동 혁신도시 실패 불보듯
 지역민 “균형 발전·공기업 효율화 동시 추진을”

재검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혁신도시와 공기업 민영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을 먼저 이전하고 ▲나중에 민영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통합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 재검토 여론을

흘리고 있지만, 일방적인 민영화는 혁신도시의 실패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국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중앙부처와 광주·전남 정·관계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 빅5' 가운데 민영화나 통합 논의가 없는 도로공사가 이전하는 경북 김천 혁신도시만 빼고 광

주·전남(한전, 전주·완주(주택공사), 진주(토지공사), 대구 동구(가스공사)혁신도시 등 4곳이 새 정부의 공공 기관 민영화·통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영화나 통합 대상의 공기업에 혁신도시 이전을 강요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재검토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공기업 민영화는 예정대로 간다는 입장”이라며 “공기업 유치는 (혁신도시)의 해당 도시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2년까지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인 175개 공공기관 중에 민영화 대상 공기업은 정부가 이전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 유치를 지방에 맡긴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본사의 혁신도시 이전을 전제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전을 이전하지 않으면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빈 껍데기로 전락하는데, 수도권 규제까지 완화하는 것은 지방을 죽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통합민주당 손학규 공동대표는 정부가 혁신도시 사업의 보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주요 국가기관의 지방이전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뒤 끝바로 카자흐스탄 쿠스타나이 공항으로 이동, 카자흐스탄 주 최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씨는 가가린우 주센터 내에 있는 병원에서 1주일 동안 입원해 건강검진 및 휴식시간을 보낸 후 이달 말 귀국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소연씨 우주 임무 완수 오늘 오후 5시30분 귀환

광주 출신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29)씨가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9박10일 간의 우주임무를 완수한 뒤 19일 오후 5시 30분 동료 우주인들과 함께 소유즈 TMA-11호를 타고 카자흐스탄 초원지대로 귀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이씨는 도착 직후 간단한 의학검사를 받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뼈 있는 쇠고기 수입 허용

한우 농가·농민단체들 강력 반발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30개월'도 조건부 개방

한·미 쇠고기 협상이 18일 타결돼 이르면 5월 중순부터 LA갈비 등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고, 미국이 앞으로 강화된 동물사료 조치를 공포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른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OIE 규정대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과 머리뼈·등뼈 등에 남아있는 고기를 기계적으로 회수해 생산한 고기도 수입 품목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행 OIE 권고 지침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광우병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30개월령 이상이면 7가지 SRM을 모두 빼야 하지만, 30개월 미만일 경우 관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이외 뇌·두개골·척수·등뼈·눈 등은 제거할 의무가 없다.

국제 곡물가격 급등으로 사료값도 폭등한 상황에서 쇠고기 시장까지 개방돼 전남지역 한우 농가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날 산지 한우(양소 600kg) 가격은 472만6천원으로 전날보다 2만7천원이 떨어졌다. 또 암송아지도 187만2천원에서 2만2천원이나 하락하는 등 축산농가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쇠고기 시장 개방 여파로 국내 양돈농가도 값싼 미국산 쇠고기와 경쟁을 하게 돼 돼지 가격 폭락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반대 집회가 예고되는 등 쇠고기 시장 개방에 따른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南北 연락사무소 설치”

訪美 李대통령 北에 상설 대화 제안

오늘 한·미 정상회담

방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 남북한 간에 고위급 외교체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포스트(WP)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연락사무소장은 양측이 합의할 사안이라는 하지만 남북한 최고 책임자의 말을 직접 전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락사무소 개설 제안과 관련, “과거 방식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북한에 처음 상설적인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의 식량위기 도래설”에 대해 “본격적인 경제협력 문제는 비핵화 진전과 연계되지만 북한 주민들의 식량 위기는 인도적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제협력과 구분돼야 한다”면서 “식량지원은 인도적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대통령은 딕 체니 미국 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은 또 한미동맹 관계 발전과 양국간 주요 현안, 동북아 및 범세계 문제 등에 대한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고 유익한 논의를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일 오전(현지시간, 한국시간 19일 밤)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한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래의 동맹관계에 대한 비전을 정립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북핵사태 해결 및 대북공조, 환경·기후·에너지 문제,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동아시아 평화체제 정착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피부의 아름다움
 피부의 아름다움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피부의 아름다움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피부의 아름다움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